

개장 50일만에 90만명 관람...순천만정원 3가지 인기 비결

①휴식이 있다 꽃·나무·바람과 함께 힐링

②문화가 있다 다양한 공연들 감성 충족

③재미가 있다 물놀이·수상자전거 추억쌓기

순천만 정원이 개장 50일 만에 9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만8000명, 휴일 3만명, 평일 9000명이 평균적으로 순천만 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볼거리 인기몰이=이처럼 관람객이 물리고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 덕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 개장에 앞서 강변도를 입체화했고, 철쭉정원에서 남문광장 쪽으로 내려오는 210m의 구름다리 데크길과 입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동문주차장도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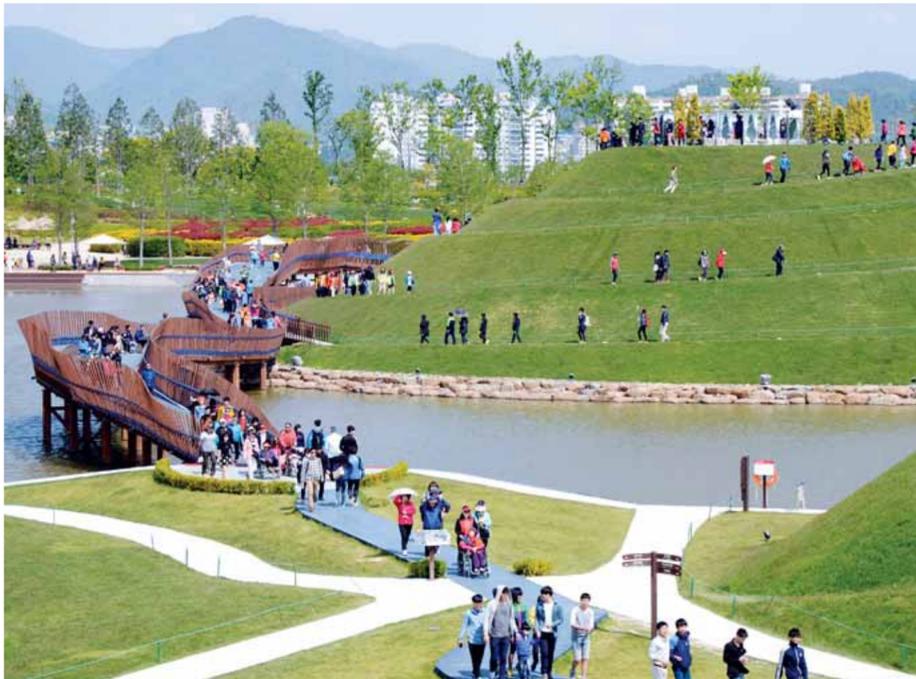
또 팽나무, 느티나무 등 자연적인 그늘막 수종 4만8000여 그루도 늘려 심었다.

이외 함께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연결하는 길이 4.6km에 국내 처음으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40대를 본격 운행하면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봄꽃을 주제로 3만5000㎡의 유채꽃길, 꽃양귀비길 등 맞춤형 테마도 개발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22종을 신설해서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 밖에 도시숲 이색자전거, 나눔숲 꽃마차, 함께 정원 만들기, 사육사와 함께하는 동물퀴즈 등 가족단위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여름철에는 동천 수상자전거, 물벼섯 물놀이, 물총놀이, 친환경 화분만들기, 정원영화제, 동물 및 곤충 전시회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곁들였다.

◇풍성한 문화체험행사도 눈길=순천



‘한반도의 정원’으로 자리잡은 순천만정원이 개장 50여일만에 90만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순천만 정원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순천시제공>

쾌적하게

그늘막 나무 4만8000그루 늘려

유채꽃길 등 3만5000㎡ 조성

다양하게

야생동물 관찰하고 만지고

물총 써바이벌 게임 즐기고

풍성하게

인디언민속공연 매일 4차례

게릴라 공연에 만화영화 상영도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시는 6월부터 순천만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신설·운영한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순천만정원 일대에서 대학생, 시민 동아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순천시 문화예술과가 지원하는 게릴라 공연이 2~3회씩 펼쳐진다.

또 정원박람회 우수 해외 공연팀 초청 공연인 인디언민속공연이 매일 4회씩 펼쳐져 흥겨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컨퍼런스 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영화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1일 2회씩 상영 된다.

또 순천만정원에 마련된 ‘야생동물원’에서는 보아뱀을 비롯한 앵무새, 너구리,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고슴도치 및 물새 놀이터 및 습지에서 노니는 고니, 원앙, 오리, 기러기, 황학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이색체험 행

사가 진행된다.

어린이정원과 생태체험장 등에 바닥수와 물총 써바이벌 게임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발길도=순천만정원은 중국 관광객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8일 크루즈선을 타고 온 중국 관광객 2500여명이 순천만정원과 낙안읍성, 이마트를 방문했다.

또 지난달 20일과 25일 양일간 14만급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선을 타고 온 6000명이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남도특산품장터를 방문했다.

이번 달에도 1만3400여명의 외국 관광객이 지난 2일과 3일, 7일과 8일, 12일 순천만정원을 다녀가거나 찾을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2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등 중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무더위 한 방에 날려 줄 여름 축제도=순천시는 오는 21일과 28일 순천만정원 잔디마당에서 ‘순천만정원 SUM-

MER 페스티벌’을 연다.

오는 21일 오후 6시에는 김승현, 안소영의 사회로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요베스트 축하쇼’가 열린다. 이번 축하쇼는 배일호, 최유나, 김용임, 신유, 박규운, 우연이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 18명이 무대에 오른다.

또 ‘순천만정원 Fantastic 가든 페스티벌 공연’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총 3부로 진행된다.

‘Fantastic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 예술팀과 뿌리페 예술단의 1부 공연을 시작으로 2부에는 신인가수 이츠, 빅 사이즈크루 등이 출연하는 K-pop 공연이 열린다.

또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3부에서는 인기 걸그룹 스텔라와 기부천사로 유명한 김장훈 특별 공연이 60분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대형공연이 펼쳐지는 날에는 많은 관람객이 모여들어 행사장 주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예정열기자 yj@kwangju.co.kr

2014 ‘순천시민의 상’ 30일까지 후보자 추천

순천을 빛낸 ‘2014년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를 찾는다.

순천시는 10일 “제20회 순천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실천한 시민을 찾아 격려하는 ‘순천 시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 상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홍보, 교육과학체육, 환경부문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추천받는다.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 또는 단체라면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자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각급 기관·단체장, 읍·면·동장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순천시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관련 심사부서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진위원회에 제출, 추진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순천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 061-749-6791.

/순천=김은종기자 eikim@

223회 순천사랑 아카데미 내일 문화건강센터에서

순천시는 10일 “오는 12일 문화건강센터에서 제223회 순천사랑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이번 아카데미 강좌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현대의인 우울과 스트레스 다스리기’를 주제로 열린다.

백 교수는 강좌를 통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과 불안, 각종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 대표적인 정신건강분야 권위자인 백종우 교수는 각종 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우울증 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 시민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맞춤형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년째인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문화예술, 인문학,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61-749-6758.

/순천=김은종기자 eikim@

신나게 즐겨라 ‘섬머 페스티벌’

- 가요베스트 축하쇼-21일 오후 6시 배일호·최유나·우연이 등 트로트 가수 18명 출연
- 판타스틱 가든 페스티벌-28일 오후 6시 1부:지역문화 예술팀·뿌리페 예술단 2부:신인가수 이츠·빅사이즈크루 등 K-pop 공연 3부:걸그룹 스텔라·기부천사 김장훈 특별공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No.1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 |유대복상사

여러분의 생활속에 함께합니다!

신록의 계절! 싱그러운 시작!!

- ▶ 금속구조물
- ▶ 창호공사
- ▶ 도로표지판
- ▶ 휨스

**유대복상사 DEABOK**

전남 순천시 저전길 86(인제동)  
Tel. (061)744-4225 Fax. (061)741-6269  
E-mail. chunji6268@hanmail.net